

레이메이노타키 폭포

레이메이노타키 폭포는 강의 수량에 따라 모습이 변한다. 수량이 적을 때는 중앙의 바위 왼쪽에 있는 주 폭포만을 볼 수 있다. 비가 오거나 하여 물이 불어나면 바위 주위에 몇 개의 작은 폭포가 생겨 기세가 힘찬 광경이 나타난다. 폭포의 낙차는 5 미터로 비교적 완만하여 물보라가 새벽의 안개와 닮았다는 데서 새벽을 의미하는 ‘레이메이(여명)’라는 이름이 붙었다. 이 폭포 바로 근처에는 1823 년에 이 지방의 다이묘(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)가 건축 자재로 심은 삼나무들이 있다. 벌채되지 않고 남은 이 나무들은 강 위에 우뚝 솟아 날다람쥐의 서식지도 되고 있다. 날다람쥐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무에 올라 나무 껍데기를 벗겨내기도 한다.